나이지리아 주간 경제동향 (1월 4주)

-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-

1. 중앙은행(CBN) 총재, 주재국 통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배제

ㅇ 주재국 중앙은행(CBN) Godwin Emefiele 총재는 주재국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, 주재국 통화인 나이라(Naira)의 평가절하 가능성은 없다고 재강조

- 동인은 지난 주말에 열린 통화정책위원회(MPC) 회의에서 최근 원유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외환 조정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

- 약 38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, 57달러~70달러 수준의 원유가격을 감안시 기존 외환 관리 및 안정 기조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

ㅇ 한편, 중앙은행은 MPC 이후 기준금리(MPR) 13.5%, 유동성비율 30%는 유지하되, 부가가치세 인상(5% → 7.5%)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지급준비율(CRR)을 현행 22.5% → 27.5%로 인상키로 하였다고 발표

【출처 : Thisday(1.27)】

2. 부채관리청, 새로운 부채관리전략 수립

ㅇ 주재국 부채관리청(DMO)은 금융수요를 충족하면서 비용과 위험선호를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부채 차입 및 관리 방법을 담은 새로운 부채관리전략을 마련 중

- 부채관리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필요자금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이며, 새로운 부채관리전략에는 국내부채보다 더 좋은 차입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

- 연방정부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재국의 경제 전망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

ㅇ 부채관리청 Patience Oniha 청장은 새로운 부채관리전략(2020~2023년)이 마무리되고 있으며, 1달 안에 국무회의(FEC)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

- 동 인은 국내보다 해외 차입을 늘리려는 기관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, 국내부채 : 대외부채 목표는 60% : 40%로 현재는 68% : 32%라고 부연

【출처 : Thisday(1.29)】

3. 연방정부, 2019년 재정적자 4.62조 나이라 기록

ㅇ 주재국 중앙은행(CBN) 자료에 따르면, 연방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에 4.62조 나이라(151.4억 달러 상당)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

- 2019년 예산상의 예상 정부 수익은 7조 나이라 이었으나,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실제 정부 총 수익은 4.77조 나이라, 총 지출은 9.39조 나이라 이었음

ㅇ 통화정책위원회(MPC) Obadan Idiah 위원은 재정적자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, 부가가치세 인상(5% → 7.5%)을 통한 국내수익 강화 노력은 옳은 방향이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경직성 경비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【출처 : Punch(1.29)】

4. Air Peace 항공사, 연내 이스라엘 및 인도 직항 운항

ㅇ 주재국 항공사인 Air Peace사의 Allen Onyema 회장은 연방정부로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지정되었다고 발표

- 동 사는 인도 뭄바이까지의 운항도 승인받았다고 하며, 뭄바이는 금년 3월까지, 텔아비브는 금년 말까지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

- 연방정부가 주재국내 외국항공사에 부여된 복수 주파수와 목적지를 다루면서 토착 항공사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,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국내 항공업체들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부연

【출처 : Punch(1.29)】

5. 나이지리아, 세계은행 부채 98.1억 달러 … 1년전 대비 약 13% 증가

○ 주재국 부채관리청(DMO) 자료에 따르며, 주재국의 세계은행 그룹에 대한 부채는 2019.9월말 기준 98.1억 달러로서 2018.9월말 대비 13억 달러 증가

- 세계은행 기구 중 국제개발협회(IDA)에 대한 부채가 94.1억 달러(2018.9월말 83.9억 달러)로서 약 96%를 차지하고, 국제부흥개발은행(IBRD)에 대한 부채는 4.095억 달러(2018.9월말 1.24억 달러)

○ 세계은행이 주재국에 대해 승인한 총 대출금액은 2019년말 기준 246.8억 달러로서, IDA에서 175.4억 달러, IBRD에서 71.4억 달러 확보

- 세계은행 대출금액은 177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되었으며, 2019.11월에는 75백만 달러가 제2차 아프리카 고등교육센터 프로젝트에 승인

○ 한편, 주재국의 GDP 대비 부채는 2019.9월 기준 18.47%로서 25% 한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지만, GDP 대비 낮은 수익기반은 수익 대비 높은 부채 상환율에 반영되어 있음

【출처 : Thisday(1.30)】

6. 외국인, 2019년 주재국 국채 매입 대폭 축소

○ 주재국 부채관리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9년 주재국 발행 국채의 4.39%를 매입함으로서, 2017년 11.7%, 2018년 10.99% 비해 주재국 국채 매입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남

-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입 감소는 국채 수익률 감소(예, 10년 만기 국채 ; 최고 15% → 11%대)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짐

○ 부채관리청은 금년에 총 3.26조 나이라 규모의 국내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며, 총 3.58조 나이라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

- 금년에 15년 만기 국채를 처음 도입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도입한 30년 만기 국채를 매각하여 장기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

○ 주재국은 85백만 나이라 규모의 외부차입을 통해 2020년 예산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지만, 부채관리청은 유로본드를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

【출처 : Reuters(1.17)】